

청소년 귀가방송 7개월째 '遲遲不進'

포천시 '배경음악이 선정 안돼 지연' 변명

포천시가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청소년 귀가방송 사업이 7개월째 지연되고 있어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포천시는 여성생 사건 등 청소년 대상 범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지난 1월 야간에 청소년들을 일찍 귀가토록 하는 계도방송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청성공원, 산정호수 등 4곳은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해 밤 10시 약 1분 정도 귀가방송을 실시하고 읍·면·동·리 지역은 방송테이프를 시에서 제작해 배포한 후 이장들이 각각 방송을 하는 방식으로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4월 청성공원과 산정호수 등 한 곳 당 8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했다. 하지만 사업시행 발표 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시는 시험방송은커녕 방송테이프 제작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방송 테이프에 쓰이는 배경음악 선정작업이 자꾸 늦어지고 있다"며 "배경음악이 선정되는 즉시 바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청소년문제 전문가인 박성운 군이다. 박군의 할머니는 좌슬개골이 상해들어가는 병을 앓고 있어 시급히 수술을 받아야 할 상황이지만 200만원에 달하는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성운 군은 끝내 모 중합병원 사회사업과에 진정서를 내며

할머니를 도와주세요

할머니의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해 애태우는 애뜻한 손자의 효심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그 주인공은 포천중학교 1학년 재학생인 박성운 군이다. 박군의 할머니는 좌슬개골이 상해들어가는 병을 앓고 있어 시급히 수술을 받아야 할 상황이지만 200만원에 달하는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성운 군은 끝내 모 중합병원 사회사업과에 진정서를 내며

는 지적이 있었다"며 "사건이 터지면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미봉책을 내놓는 자세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청소년 문제나 청소년 대상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확실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지연기자 soma7000@naver.com

희망을 걸었지만, 100만원 이상은 당사자가 책임질 능력이 있어야 치료비를 감면해 주는 병원의 방침 때문에 한 가닥 기대마저 접어야 했다. 방학중에는 자신이 늘 할머니 곁에서 간호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애뜻한 효심이 결실을 맺어 할머니와 손자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주위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시점이다. (후원:포천시 선단동 사회복지담당자 031-530-8840) 정병갑기자 jpk61@hanmir.com

에스더선교회 무료미용봉사 현장

만세교 새터교회에서 40여명 봉사

거동이 불편한 장애우들과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미용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사랑의 교회 에스더선교회(회장 임순자)로 지난달 30일 포천시 만세교에 위치한 새터교회(목사 박춘식)에서 지역주민들과 장애우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무료미용봉사활동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우와 지역주민들을 4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퍼머와 컷트 봉사를 실시했다. 새터교회는 무료봉사활동에 나선 에스더선교회 회원과 지역주민들에게 국수를 대접하여 서로 돕는 봉사활동의 훈훈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날 미용봉사에 나선 에스더미용봉사팀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때 교회에 접근하기가 힘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전해 주고 가벼운 마음으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싶다"며 "도움이 필요한 교회나 단체가 있으면 언제라도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용봉사를 받은 한 장애우는 "거동이 불편해 미용실에 나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찾아와서 마음을 해 줘 너무 고맙다"고 말했다. 양근원(대진대) 학생명예기자 s2na@dreamwiz.com



에스더선교회 선교회 회원들이 새터교회에서 무료미용봉사활동을 펴고 있다.

유적지 (청남대)순례기



바르게 살기운동 포천시 협의회 회장 이병업

2004년도 연중계획에 의거 오랜 준비 끝에 향토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체질을 통하여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높이기 위하여 6월 21일 43명의 시 임원과 읍·면 위원장이 참석하여 09시 포천을 출발하여 12시경 청남대에 도착하여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 맛있게 마치고 대통령의 정몽별장인 청남대를 관람

물이 많이 빠져 있었음)과 숲이 잘 어우러져 있었으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조경코스였다는 마사토로 만든 산책로를 걸으면 기분이 썩이나 상쾌해 지기도 하였다. 곳곳에서 유래를 설명해주는 해설가들의 안내를 받으며 양어장, 팔포장, 낚시터와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보관되었다는 바닷가의 초가집을 원형대로 옮겨 놓은 초가집에는 옛 농기구와 어부들의 기구가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을 둘러보는 것으로 청남대의 일정을 마치고, 다음 코스인 영조대왕태실

에 이르니 단지 안에는 문이 화려하고 고인돌을 비롯한 선사유적과 문양의 높은 초가집에는 옛 문헌화재 49호인 문 산관을 원형대로 이전, 복원해 놓았으며 이외에도 양반가옥,주막집,토담집,대장간,삼각 등을 원형대로 재현해 놓았으며 옛 가족에 지붕을 짚으로 되어 있었고,

대통령의 휴양지

국민의 품으로

하고 대청담 공사로 수몰된 지역의 향토문화유적을 원형대로 보존하기 위하여 조성된 문화재단지를 순례하게 되었는데 세상은 넓고도 좁다는 말이 실감나게 그곳에서 포천시 근내면 직두리 노인회 회원 일행을 만나서 몹시 반갑은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날씨는 오랜 가뭄으로 몹시 후덥지근했지만 회원들은 일 반인에게 공개된 지 1년여 밖에 되지 않은 청남대이므로 호기심과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제일 먼저 찾은 청남대는 20여년간 대통령의 휴양과 국사를 구상하는 곳으로 이용되다가 참여정부에서 일반에게 공개되기 시작하였다.

청남대는 전직 대통령들의 취향에 맞게 테니스장, 골프장, 조깅코스 등 다양한 시설물이 있으며, 잘 꾸며진 골프장과 여러 종류의 희귀한 나무와 특히 야생화 단지가 일품이며 우리 일행이 찾은 날에도 전국 각지에서 많은 인파가 모여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으며, 곳곳의 안내자의 안내에 따라 대통령이 기거하셨던 본관에 도착하니 생각보다는 그리 화려하지 않고 아주 소박하게 꾸며져 있어 지금로서는 우리 내 중류가정집의 가구쯤으로 꾸며져 있으나 호수(가물에서

굴뚝이 초가 밑에 있음은 그 연기가 지붕의 집에서 기생하는 벌레들의 제거작용을 하는 기능이 있다는 해설가의 설명을 듣고 나니 옛 우리 선조들의 명석함에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유물 전시관에는 충북 유형문화재 170호인 영조대왕태실 가봉 의를 비롯하여 각 지역에서 수집된 기와 외 700여점을 시대별로 잘 분류 전시하고 있었다. 바쁜 공무중임에도 청원군청 문화관광과 정영숙 문화해설사의 해박한 설명을 들으며 지루한 줄 모르고 그곳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는데, 우리 옛 선조들의 삶과 지혜에 대해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 문화행사였으며 청남대 개방으로 인하여 전국적인 관광 명소로 조금도 손색이 없는 곳이었다.

*차편으로 직접 청남대 안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약 1개월 전에 청원군 문화관광과에 예약을 하여야 하며 1일 70대로 제한되어 있다 하며 그렇지 않고는 그곳에서 운행하는 차편을 이용하여야 하고 입장료는 성인2천원 *청원군 문화관광과: 043-220-5677 *청남대 관리사무소:043-251-3226

■ 아름다운 가족 ① ■

가정의 화목으로 이기는 경제위기

가정의 문제는 곧 자녀의 문제로 이어지고 자녀의 문제는 사회문제로 확대 되고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가 갈수록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본지는 아름다운 가족구성을 위한 청소년 상담 전문가 김영진 교수의 이야기를 연재하고자 한다. 이번 연재가 우리사회의 우리가정의 행복찾기의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편집자주)



신뢰감과 사랑의 실천에서 시작된다.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문제는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긍정적 표현보다는 할 태도를 지녀야 가족간의 상호 존중감이 향상될까? 우선 가족 구성원 각자의 생활 태도나 사고방식을 존중해 주는 일이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문화갈등 내지는 세대 차이를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아량이 가족 내에서 흘러 넘쳐야 한다. 네 생각은 잘못된 것이니까 이렇게 고치도록 노력해 봐! 라는 사고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너를 이해할 수 있느냐? 라는 사고로 변화되어 너와 나 '우리'로 바뀌어야 한다. 얼마, 아빠가 어떻게 노력해야 이 어려움이 견뎌질까 고민할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어떻게 노력하면 이 위기를 잘 견디어 낼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이 세상사람 모두가 너를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가족은 절대로 너를 포기할 수 없다'는 강한 지지감이 필요하다. 부모든 자식이든 실적을 담하거나 자신의 일에 실패하여 심한 좌절감에 빠져 있더라도 편하게 나를 받아 줄 가정이었다면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 어려움에 처한 가장이나 자녀가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들어가면

그렇다면 가족이 평소 어떤 생활 태도를 지녀야 가족간의 상호 존중감이 향상될까? 우선 가족 구성원 각자의 생활 태도나 사고방식을 존중해 주는 일이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문화갈등 내지는 세대 차이를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아량이 가족 내에서 흘러 넘쳐야 한다. 네 생각은 잘못된 것이니까 이렇게 고치도록 노력해 봐! 라는 사고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너를 이해할 수 있느냐? 라는 사고로 변화되어 너와 나 '우리'로 바뀌어야 한다. 얼마, 아빠가 어떻게 노력해야 이 어려움이 견뎌질까 고민할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어떻게 노력하면 이 위기를 잘 견디어 낼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모두를 경제위기라고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때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답답하고 불안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언제까지나 그 문제에에만 매달려 있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경제위기 시대라 해도 삶은 제대로 이어가야 하니깐요. 또 행복도 필요하고요. 경제위기 시대의 행복! 과연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그리고 그 행복을 찾기 위해 무엇부터 시작하고 무엇을 바로 잡아야 하나요?"

시대가 어렵고 복잡해질수록 행복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는 더 절실해진다. 그러나 막상 '가족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당신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고 물으면 섣불리 대답을 못한다. 그 이유는 부모

들이 오직 '자녀가 무엇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삶의 외적인 행복에만 관심이 있을 뿐, 삶의 질을 추구하는 내면적인 행복에 대해서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호경이나 가정이 순조로울 때는 드러나지 않았던 가정의 해체, 부모의 가출, 자살, 이혼의 증가, 청소년 비행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먼 미래를 꿈꾸기보다 당장의 삶에만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이다.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절대 흔들림이 없이 나를 받아 줄 가족이 있다는 소속감과 그 가족에 대한 신뢰감, 가족이 함께 노력하면 뭐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뚜렷한 미래의식이 행복한 삶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이런 것들은 가족간의 절대적인

모두 나를 탓하거나 흥분 거리는 선입견과 격정 때문이다.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가정의 해체 현상도 이 지지감의 상실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가족 구성원의 표정이 밝을 때보다도 어두울 때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가족의 작은 변화도 함께 기뻐해 주는 분위기, 상대방이 어려울 때 서로 보듬어 주며,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하자는 진심어린 격려가 필요하다.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이라고 서슴없이 말한다. 그러나 과연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평소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쯤 생각해 보자. 혹시 바쁘거나 내가 좀 부족해도 가족이니까 이해해 주겠지 라고 무심하게 넘긴 적은 없는지 돌이켜 볼 일이다. 왜냐하면 가족간의 사랑은 마음뿐만 아니라 전답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실천과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그냥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노력하고 실천할 때 더욱 단단해지고 그 힘이 강해진다.

이 같은 노력이 있다면 이 순간의 어려움은 오히려 우리 가족의 화목과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는 또 다른 기회로 바뀔 수 있다.

김영진
포천시청소년상담실장
경북대학 학사지원처장
포천신문지문위원

open

우촌 돈가네 생고기 마을 !!!

-가격혁명을 일으킬 생고기 마을 생고기 맛과 가격에 놀라실겁니다-

메뉴	
우촌 스페셜 모듬 600g	23,000
우촌 한마리 모듬 600g	20,000
버섯 생 불고기 1판	20,000
이동갈비 8대	16,000
육회 300g	10,000
돼지모듬 600g	10,000
항정살 600g	10,000
생갈매기살 600g	10,000
생삼겹살 600g	9,000
생목살 600g	9,000
돼기갈비 600g	8,000

※ 간, 천엽, 육회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 영업시간 : 오전 10시 ~ 밤 12시까지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 예약, 문의전화 : 031) 542-0270 / 대표 : 조규범